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2, 문화 언어 장르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지난 강의에서는 해석학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인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석학을 필요로 하는 장벽이나 거리, 간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것이 또한 내가 말했듯이 해석학에 대한 가정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리를 인식하지 못하며, 해석학은 그 거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의 성격,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관한 어떤 가정이 우리가 해석학을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문헌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영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단어 자체가 다양한 이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종교

문헌, 즉 하나님 자신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연관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문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학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신학적 의미에서 성경은 그 기원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일부는 성경을 완전한 인간적 차원과 그것이 인간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완전한 인간 문서로 이해하는 방법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대부분의 의견을 그것이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로 제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 본문 자체를 살펴보고 영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구약과 신약 본문을 영감받은 문헌으로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요소만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석학과 해석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성경을 다른 형태의 인간 의사소통 및 우리가 해석하는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영감받았다고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종교 서적과 구별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탐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영감받은 문학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자체에 관한 진술입니다. 두 번째는 현상, 즉 성경 본문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는 성경이 그 자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할 때 본문 자체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술, 적어도 영감에 관한 논문을 읽기 시작할 때, 영감에 관한 고전적인 텍스트처럼 항상 표면에 나타나는 두 가지 텍스트는 둘 다 신약에서 발견됩니다. 성서, 구약 성서 및 그 성격을 증명하는 텍스트.

그리고 저는 특히 선지자들이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분명한 많은 예언 문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구절 중 첫 번째 구절은 바울 문헌에서 발견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미안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16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영감이라는 용어를 얻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울이 이 단어를 신의 호흡으로 번역한 것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두 개의 그리스어 단어에서 직접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에 대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과 의에게 유익하니 그리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바울은 본문 모음을 그와 그의 독자들, 주로 구약이 사용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바울도 거기에 복음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그 자신의 편지와 다른 신약성경 문서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주로 구약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는 구약 전체, 즉 성경 전체를 바로 하나님의 숨결의 산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봅니다. ,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구약 전체에 대한 중요한 메타 진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의 전후를 읽어보면, 바울이 구약이 증거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종류의 메타 진술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성경 전체를 바로 하나님의 숨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인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성경 자체의 관점을 확립하는 데 탁월한 또 다른 텍스트는 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일종의 메타 진술이며 베드로후서와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0절입니다.

그리고 19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는 더 확실한 선지자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데를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무엇보다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선지자 자신의 해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아주 간략하게 이 본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자가 주로 예언적 본문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본문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예언적 본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도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산물로 본다..

따라서 이 두 진술은 사실을 확립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초월하는 일종의 메타 진술은 이 두 저자인 바울과 베드로가 구약을 보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로 본다는 사실을 확립합니다.,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 인간의 삶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의 신성한 활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감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은 주로 이 두 본문으로부터입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 즉 하나님께서 개인을 움직이시고 움직이시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활동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는 성경 본문 자체의 진술과 그것이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현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실제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리고 다시, 나는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고려해야 할 일부 세부 사항이나 본문에서 찾은 내용에 대해 고통스러울 만큼 간략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다시 한 번 몇 가지 사항을 나열하고 아주 간단한 예를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 즉 인간 저자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공식, 즉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했거나, 주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거나,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종종 주님은 예언적 연설 공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결과이거나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신학 교과서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서와 같은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결과인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구약의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에서는 하나님, 특히 요한계시록이라는 두 개의 묵시적인 작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의 첫 절에서 요한은 자신의 책에 예수의 계시를 표시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근원이시며 계시를 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하고 있는 다른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시 활동의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요한에게 행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본문, 특히 예언형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저자들이 기록한 것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종류의 텍스트는 인간의 말, 인간이 자신의 말을 쓰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명백히 말하고 쓴 단어가 후대 작가들에 의해 종종 신의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창세기 2장과 24절에서 저는 구약성경의 예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구약성서 학자가 이 모든 것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니 저는 압니다. m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창세기 2장과 24절. 이 구절은 나중에 신약성서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2장과 24절에서 저자는 이러한 이유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끝 부분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2장의 이야기 끝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흥미롭게도 많은 논평자들은 이것이 종종 해석적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종의 작성자 본인의 의견입니다.

현대에는 괄호 안에 넣거나 각주 같은 곳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뭔가를 서술하면서, 아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코멘트를 하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것은 아마도 저자 자신의 해석적 논평일 것이며, 성경 본문과는 별개로 그 자신의 서술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말이며, 그가 지금까지 쓴 것에 대한 그 자신의 평가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본문을 선택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이유가 있으면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듣지 못하였느냐 대답하시되 본래 창조주가 하나님을 가리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르시되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러면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하느님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창작자는 이런 말을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에 이것은 인간의 말과 창세기 2장의 원래 문맥이 이제 창조주 곧 하나님 자신에게 귀속되는 매우 직접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저자가 무언가를 말한 다음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구약의 시편, 시편에는 예가 가득합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내 모든 것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와 같은 시편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찬양이나 애도, 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다른 종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입니까? 다른 성경 본문은 매우 인간적인 편집, 제작, 저작 과정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나는 특히 인간 저자의 성경 본문에서 이전의 저술, 심지어 세속적인 저작에 의존하여 언급, 명시적인 언급을 염두에 두고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예를 지적할 수 있지만 열왕기하에서는 이런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지만 열왕기하 12장과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9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음 중 하나의 공적을 기록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19절에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왕기의 저자는 그 당시에는 흔했던 다른 출처에 의존해 왔으며, 이를 제공하기

위해 열왕기의 연대기라고 부르는 또 다른 문서를 연구하고 활용해 왔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

신약성서의 세 번째 복음인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맨 처음에 일종의 프롤로그 형식의 진술을 통해 누가는 실제로 자신이 복음을 산출한 수단에 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그는 우리에게 그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더라.

그러므로 나도 모든 일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한즉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쓰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가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연구 자금을 후원한 이가 있었을지라, 이는 너희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텍스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몇 가지.

우선 누가는 순서대로 기록하는 등 누가가 닮은 다른 설화나 전기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를 꽤 많이 사용한다. 이 언어의 대부분은 다른 작품과 유사합니다. 이는 루크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둘째, 누가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다른 기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누가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서 중 하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작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다른 기록을 알고 있고 아마도 그 기록을 보완하거나 일부를 바로잡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로 누가는 이러한 기록에 대해 증언하는 목격자와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은 매우 인간적인 해석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 동기 중 하나가 나중에 다른 세션에서 조금 이야기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누가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두어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성령의 종말을 제공하는 두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이는 또한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 문구이므로 아마도 그들은 그것에서 끌어낸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 서기관들은 이것이 너무 그렇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누가가 이 글을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신의 승인을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그 뒤에도 신의 승인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본의 추가 내용이 올바르지 않다면 누가는 매우 인간적인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출처에 의존하고 있고, 목격자를 알고 있으며, 예수의 생애에 대한 다른 기록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마도 테오피루스의 요청에 따라 테오피루스에 대한 자신의 기록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성령에 의해 앉아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하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2권의 저자처럼 매우 인간적인 과정의 결과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Kings는 출처를 사용하여 왕의 삶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편집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감받은 성구는 어떤가요? 이것이 구약성경을 영감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어떻게 들어맞는가?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유형의 증거, 특히 이 증거, 이 예는 신약성서에서 나온 것인데, 바울이 때때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별하는 것 같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바울이 자신이 쓴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에게 계시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바울이 지시를 내리는 곳이며, 7장은 현대 독자와 우리의 역사, 문화, 배경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훌륭한 예가 될 것입니다. 고대 텍스트와 그 문화, 배경 및 역사.

그러나 바울은 결혼, 이혼, 성생활, 금욕, 과부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는 아마도 그들이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이혼했든 안 했든, 무엇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이 명령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계명은 이러하니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찌니 만일 헤어졌더라도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제 12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말함은 주님이 아니라라고 말함으로써 그 말을 한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와 함께 살려고 하면, 그는 그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그와 함께 살려고 하면 그 남편과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텍스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예수를 통하여 그에게 계시하신 말씀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할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말, 곧 자기 의견을 구별하여 이것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텍스트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바울은 권위의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계시하시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가볍게 받아들이셔도 되고, 뭘 하고 싶은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나는 그가 단순히 자신의 말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서 뒷받침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마리아에게 이 명을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고 말할 때, 나는 그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19장에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인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을 읽을 때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지시의 일부를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이 명령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고 말할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순히, 나는 복음서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통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호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지 나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이것을 뒷받침할 예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7장 끝부분에서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에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권위가 있고 순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14장 후반에서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이 다름 아닌 주님의 명령임을 누구든지 깨달아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위의 수준을 구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소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그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계시된 그대로니,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7장에서 바울은 단순히 예수의 지상 가르침과 예수의 말씀에 호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위 있는 메시지를 말하며 독자들이 순종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또 다른 세부 사항, 성경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현상입니다. 다시 한 번, 나는 이것에 대해 신약성서에 호소합니다. 비록 구약성서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특히 소위 공관복음서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사이에 어떤 문학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표현,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세션에서 자료 비평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공관 복음서는 예수님의 똑같은, 때로는 똑같은 표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내 요점, 이 시점에서 내 의도는 이 둘 사이에 판결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표현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고, 2인칭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아마 삼개국어(아람어,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구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것을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면, 이 내용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정확하고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 그 중 한 사람이 잘못 이해한 걸까요?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루크가 영혼을 빼서 잘못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정확하고 정확한 말씀을 보존하는 데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요약이나 정확한 설명 및 요약을 작성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가깝게 기록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정확한 말씀을 반드시 기록하지 않고도 마태와 누가 모두 예수께서 전달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중 하나가 틀렸다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마태와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한다면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다시 말했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리 중 하나는 문학적 거리입니다. 1세기에는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요약하고 요약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전달한 내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한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인용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인용문을 인용하고 정확하고 정확한 읽기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정확한 요약을 제공하는 데 더 관심을 두어 마태와 누가 모두 올바른 내용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예수께서 전달하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가장 긴 버전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시간을 내어 앉아서 좋은 영어 번역본으로 읽으면 읽는 데 10~15분,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10~15분 동안 가르쳤다는 것을 심각하게 의심합니다. 아마 하루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더 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루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소중한 산상 수훈도 때때로 정확한 표현의 일부를 포착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태가 쓴 기록 자체를 읽으셨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포착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신약성서, 특히 복음서에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정확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요약하고 때로는 다르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누가 육체적 가난을 강조한 데 비해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발견한 마지막 현상과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다른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한 마지막 현상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구원을 배열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신약이 때로는 구약의 이전 계시를 가리고 성취하도록 배열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성찰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되었을 때 그것은 성경적인 교훈이고 성경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켰던 안식일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구약의 계시 중 특정 부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때로는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제사 제도나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일부 규정 등을 뒤집기까지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구약성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현상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저자가 찬양할 때나 찬양의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애도와 예배. 때때로 인간 저자들이 말하는데, 나중에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릴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매우 인간적인 구성과 제작 과정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확한 단어를 작성하고 보존하는 데 관심이 없는 저자를 발견하지만 요약은 때로는 요약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 다음 그것을 성경 자체의 메타 진술, 즉 성경이 영감을 받았거나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산물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인간 저자들이 적어도 디모데후서에서 호흡으로 내뿜은 바로 그 단어를 생산하도록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니라.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해되는 방식은 적어도 네 가지였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 이 증거를 요약할 수 있거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이것과 씨름해 온 영감에 대한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는 하위 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다른 뷰가 있을 수 있지만 매우 넓은 브러시 스트로크를 사용하여 칠하겠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종종 근본주의적 견해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들 중 일부는 이것을 예언적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하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경 저자에게 말씀을 직접

받아쓰고 말씀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저자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기록하고 새기는 수동적인 비서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언이 성경 전체에 확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쓰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또 다른 견해는 자유주의적 견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인 근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본문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동일시된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자유주의 견해는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체로 인간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영감은 다른 영감받은 문학 유형과 일치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 다른 어떤 종교적 문헌이나 다른 어떤 문헌보다 더 중요하지도, 적어도 더 권위가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견해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세 번째 견해는 종종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와 관련된 견해였으며, 이는 신정통주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기록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증거입니다. 종종 바르트나 다른 사람들이 바르트에 대해 토론하면서 성경을 계시의 증거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르트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시며 어떤 인간의 언어나 문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포착할 수 없다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고 오류가 없는 인간의 문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에 대한 이러한 증거를 통해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견해는 종종 더 나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복음주의적 견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두 번째와 세 번째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나 첫째, 근본주의적 견해와 달리 복음주의적 견해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인간 저자들을 통해, 그리고 매우 인간적이고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다른 출처를 활용하고 목격자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예수의 삶에 대한 다른 기록을 알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서 아마도 그 중 일부의 단점을 발견하고 이제 자신의 기록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과정에 걸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므로 그 결과는 다름 아닌 인간의 말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신성한 생산, 신성한 개입,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육신에 비유했는데, 예수님이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사실은 이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이야기와 누가복음, 즉 구약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으로 부르짖는 시편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강조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인간적인 의사소통과 글쓰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헬라어를 야고보나 마가의 헬라어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주의적 견해는 성경이 인간의 완전한 요소를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기한 두 성경 본문, 즉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서 3.16절, 디모데후서 3.16절의 구절에서 이 두 본문이 영감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계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마무리하고 다음 세션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겠습니다. 영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해석과 해석학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디모데후서 3.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이 확장에 의해, 아마도 번역과 확장에 의해 구약 전체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바울은 다소 분명하거나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비록 복음과 예수의 가르침도 포함될 수 있지만 바울이 주로 언급한 구약성서, 즉 그에게 전해졌을 성경입니다.

또 다른 점은 이 본문과 그것이 성경과 영감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 전체, 주로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려는 한 가지 시도는 숫자, 첫 번째 관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근본주의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되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선지자 외에는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영감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결과물, 즉 최종 결과물, 즉 성경 그 자체, 본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그 기원은 바로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숨결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다른 기록을 읽으면서 아마도 몇 가지 결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생산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복음서를 쓰고 싶어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을 원했던 것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요 말씀이라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결과가 여전히 인간의 말이라는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 본문에 대해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영감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영감받은 본문은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 선반에 올려놓고 보라,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존재 속으로 들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순종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우리 위에 권위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마지막 본문인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장 21절에서 저자는 선지자들이 저절로, 자기 해석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개인들이 썼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가 적어도 여기에서는 모든 본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계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그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맥을 읽고 베드로후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바울은 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심지어 사도들도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나 자기의 해석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라. 비록 우리가 신약성서의 다른 책들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지만, 확실히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예언 문학을 다루고 있으며 이야기나 시, 다른 유형의 문학이나 다른 텍스트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간을 통해 역사하여 인간 저자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말씀 그 자체인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숨결에 빛진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선, 성경은 인간의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다양한 비평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평의 의미를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해석 방법, 다양한 비평, 인간의 이해를 분석하는 방법은 모두 타당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인간적인 문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문제 등에 대한 대응으로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인간에 의해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인간 차원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비판을 사용하여 검증합니다. 그러나 둘째, 이 문서들은 신성하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즉, 역사적 방법은 성경 본문을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영적인 문서이기도 하며, 그 뒤에는 영감을 주시고,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우리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책으로서, 신성한 책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순종의 반응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자체가 우리 해석 활동의 중심지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전통이나

출처가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성경 본문에서 종종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사적, 문화적 거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해석 활동의 중심은 텍스트 그 자체이지, 우리의 재구성, 재구성된 역사적 배경, 소위 가상의 재구성 소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완성된 본문,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산물이자 영감받은 본문으로서 우리 해석 활동의 소재지 또는 중심이 되는 산물입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가정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구약과 신약, 특히 복음주의 학자들이 고백하는 정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가정하겠습니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예수의 간증에 기초한 정경이고, 다른 고대 유대 권위자들이 AD 4세기와 5세기의 초대 교회와 씨름하고 일하던 증거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문서를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할 것입니까?

그 증거에 기초하여, 우리 해석 활동의 중심이자 대상은 정경인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원과 그것이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석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취할 다음 단계는 예비 단계입니다. 즉, 우리가 영감받은 성경 본문이나 그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본문 비평이라고 알려진 과정입니다. 다음 세션에서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인 성경의 기원에 대해 논의했는데,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문 비평과 번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세션에서 다루겠습니다.